



일본의 3/4분기 경제성장률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엇갈린 전망

이아름 연구원

- 일본 내각부는 2013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비 0.5%, 연율 1.9%(속보치)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였다고 발표함.
 - 수출 둔화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2013년 3/4분기 성장률이 2/4분기 성장률보다는 둔화되었지만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
 - 일부 예측기관은 3/4분기 성장률 둔화로 아베노믹스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나 반면 다른 예측기관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2014년 1/4분기까지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 2013년 상반기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고성장세를 보였던 가계소비와 수출이 2013년 3/4분기에는 부진하였으나, 공공투자 등 정부부문의 증가로 2012년 4/4분기 이래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
 - 가계소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2/4분기 0.6%에 비해 0.5%p 하락한 0.1%를 기록함.
 -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로 수출은 0.6% 감소한 반면 수입은 2.2% 증가하였음.
 - 일본 재무성은 10월 무역수지가 1조 910억 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9월 무역수지 적자 9,320억 엔에 비해 악화된 결과임.
 - 반면, 공공투자는 2013년 2월에 마련한 추경예산 집행으로 2013년 1/4분기 2.5%에서 2/4분기 4.8%, 3/4분기 6.5%로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음.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13년 3/4분기 2.7%로, 2/4분기 1.1%에 비해 개선되었음.
 -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2012년 4/4분기 0.1%, 2013년 1/4분기 1.1%, 2/4분기 0.9%, 3/4분기 0.5%로 4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함.

〈표 1〉 일본 분기별 성장률

(단위: 전기비 %)

구분	2012년	2013년		
	4/4Q	1/4Q	2/4Q	3/4Q
실질 GDP	0.1	1.1	0.9	0.5
(연율)	0.6	4.3	3.8	1.9
(전년동기대비)	0.3	0.3	1.1	2.7
가계소비	0.4	0.8	0.6	0.1
설비투자	-1.2	0.1	1.1	0.2
공공투자	3.3	2.5	4.8	6.5
수출	-3.0	3.9	2.9	-0.6
수입	-1.7	1.0	1.7	2.2
디플레이터	-0.7	-1.1	-0.5	-0.3

주: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일본 내각부,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 3/4분기 성장률 둔화로 인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일본의 실질GDP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보여 왔으나 3/4분기 GDP 성장률 둔화로 지금까지의 성과는 엔저에 따른 단기적 성과로 평가되면서 아베노믹스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대됨.
- 그러나 IB 등 주요 예측기관들에 따르면 3/4분기 성장률 둔화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확대 해석된 전분기의 고성장에 대한 일시적인 반작용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함.
- 또한 2014년 1/4분기까지는 추경예산 실시에 따른 공공투자 증가와 2014년 4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선취 수요 등으로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13년 9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와 경기동행지수¹⁾는 8월보다 각각 0.8 상승한 109.2와 108.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향후 일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함.
- 일본은행은 향후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에 관해 낙관적인 입장이며, 주요 IB 등은 2014년 4월경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금융완화조치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등)

1)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이후의 경제 건전성을 반영하는 지표이며, 경기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 국면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임.